

성경탐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대째 축적된 부와 무장능력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생활 400년 미스터리 1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삼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생활 가운데 불어나는 가족과 종들을 소유하게 된 배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생활 400년 미스터리 1편』에서 살펴보고, 다음호에 실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생활 400년 미스터리 2편』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3대 째까지 쌓은 부(富)와 무장능력이 애굽의 나일 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제패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런 잊혀진 역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막강한 무장능력을 갖춘 아브라함의 탁월함

아브람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엘람 왕의 군대에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족각 아브람은 길들과 훈련된 그의 양치기 삼백십팔 명과 여러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엘람의 군사를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출하는데 성공한다(창14:12~16). 소돔 왕은 엘람의 군대를 물리친 아브람을 개선장군처럼 맞이하고 도로 찾은 재물을 아브람보고 가져가라고 하였지만, 아브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재물은 하나도 갖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그 전에 아브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벨기세덱으로부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원하노라”는 축복을 받고 자신이 되찾아 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쳤다.

이렇게 십일조를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입하여 말씀하기를,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창15:1)”고 하였다. 아브람은 패퇴한 엘람의 왕이 또 다시 군사를 일으켜 몰

이스라엘 민족 430년 애굽 생활 (BC 1876~1446년)
BC 1876년: 야곱 130세 때에 가족을 이끌고 총리대신으로 출세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함
BC 1869년: 야곱 147세의 일기로 임종
BC 1842-1797년: 애굽의 바로왕 아메넬렛 3세
BC 1805년: 요셉 110세에 임종 (* 기원전 1915년에 요셉 출생)
BC 1778년: 야곱의 정자 단이 140세에 임종 (* 기원전 1918년에 단 출생)
BC 1674-1575년: 희소스의 다섯 왕이 애굽을 통치
BC 1584-1560년: 애굽 18왕조의 첫째 파라오 아호모세 1세 재위
BC 1575년: 아호모세 1세와 희소스의 근거지 델타 지역 아바리스를 합력시키고 희소스를 축출함
BC 1546-1526년: 18왕조의 둘째 파라오 아멘호텝 1세
BC 1526-1512년: 애굽 18왕조의 셋째 파라오 투트모세 1세 재위
BC 1527년: 모세 출생
BC 1486년: 애굽 왕자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집으로 피신
BC 1450-1425년: 애굽의 바로왕 아멘호텝 2세 재위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중과부적으로 케달당할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니 안심 되었다. 한편 아브람은 집안의 대가 끊긴 마당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큰 상도 소유 없는 일이며, 이제 자신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가 충실한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람의 종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며, 아브람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것은 “나 여호와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기 위함이라(창15:18)”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네 자손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자손을 부리던 나라를 칠 때 네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고 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될 일이라고 주시지킨다.

불어나는 이삭과 야곱의 가업(家業)

아브람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후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니 이는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됴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이를 곧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라고 명령하였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집안이 번성하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그날 땅에 머물렀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백배의 풍성한 수확을 하였다(창16:12).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여 그같이 거하면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던 것이다.

이곳 그날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향불로 잿더미가 된 후 아브라함 100세에 헤브론 마드레의 천막을 걸어 이사 온 그 해에 이삭이 태어나서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지기 전까지 20년간 살았던 이삭의 고향이다. 그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종들이 여기저기에 우물을 파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우물들을 지금 이삭은 더듬어 찾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넉넉한 물과 풀이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이삭의 가족은 양떼와 소떼를 이를 정도로 불어났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고 또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하니 그곳 그날 땅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정착하게 된다.

브엘세바에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삭의 맏아들 예서가 헛 족속 브에리

의 딸 유딧을 아내로 맞았다. 결국 예서는 처갓집이 있는 세일산으로 내려가서 에돔 부락을 이루고 거기서 족장이 되었다. 그리고 형 예서를 속여 장자권을 취한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다. 밧단아람에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열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된다. -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본처 라헬의 몸종 발하가 낳은 아들이 곧 ‘단’이며, 이 단을 낳자마자 곧바로 야곱과 라헬이 은밀히 장자상속을 하였던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창45:20). 바로왕 세누세레트 3세(Senseret III)는 그의 고조부 아메넬렛 1세(Amenemhat I)가 재상으로 있다가 멘투호테프 4세의 왕위를 찬탈하고 애굽의 12왕조를 개창한 장본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애굽의 재상 요셉은 애굽왕 바로(세누세레트 3세)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친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당부하기를, “애굽으로 이사 올 때에는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 그리고 철제농기구를 가나안

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고센 땅에 원주민 애굽 사람들을 속아 낼 요량으로, 요셉은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을 나누고 애굽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창47:27). 바로왕 세누세레트 3세(Senseret III)는 지방호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총리대신 요셉의 정책을 환영하였다.

이로써 애굽의 원주민이 빠져나간 고센 땅에는 가나안에서 머물고 있던 야곱의 많은 종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레위지파는 야곱을 모시고 고센 땅 라암셋 즉 오늘날 칸티르(Qantir) 성읍에서 번성하였고, 베냐민과 므낫세를 포함한 에브라임지파는 라암셋 서편에 거주하면서 온(On)의 제사장 외할아버지가 사는 헬리오폴리스(Heliopolis)를 오가며 번성하였다. 그리고 비돔(Pithom)과 숙국(Succoth)에는 것과 시므온을 포함한 르우벤지파가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스불론과 잇사갈을 포함한 유다지파는 아바리스(Avaris) 성읍에서 거주하면서 가나안의 에돔 왕국과 교역한 것으로 보인다.



고센 땅, 이스라엘 12지파 분포도

것이다. -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피생활 20년을 끝내고 고향을 돌아갈 때에 소떼와 양떼 그리고 많은 염소와 낙타와 나귀를 몰고 갔다.

고센 땅을 할양받는 총리대신 요셉의 총명함

기원전 1876년, 야곱 130세 때에 가나안의 삼한 기근을 피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총리대신으로 출세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였다(창46:27). 애굽왕 바로(세누세레트 3세)는 가나안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기구를 애굽에 반입

에 남겨두라.”고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바로왕을 알현하려 궁전에 들어가는 그의 형들에게 “왕이 생업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조상대대로 양치는 목자이며 지금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뒤덮여 양떼를 칠 곳이 없으니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세요.”라고 일러주었다.

마침내 야곱의 가족은 바로왕의 재가(裁可)를 받아 고센 땅을 할양받았다. 총리대신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입문수기

인연 따라 흘러 흘러 승리제단에 오라

나는 어렸을 적, 행복한 기억이 거의 없다.

부모님께서 5남매중 막내인 나를 낳지 않고자 했지만 아버지 꿈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 생각해 보니 하늘에서 5명의 장군이 내려와 아버지 앞에 섰다는 내용으로 바치는 길몽이었는 데, 내가 태어날 때 꿈은 산과 산 사이에 걸쳐서 큰 용 같은 것이 보였는데 머리를 보니 '이무기'여서 너는 대가만성 할 사람이라 위로해 주셨다.

생명을 붙잡고 마침내 세상 빛을 봤으나 어머니가 아프셔서 직접 젖 먹여 키우지 못하고 할머니와 큰형이 돌보면서 자라게 되었고 5세쯤에 부모님이 나를 데려라 오셨으나, 부모라는 정은 느낄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 밴텀급 전남 챔피언이 되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1977년 당시 유행하던 태권도 도장 다니는 것이 하고 싶어서 태권도를 접하면서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선수생활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전남 밴텀급 챔피언 타이틀도 경험했다.

운동선경이 좋아서인지 태권도 하면서 축구도 접하게 되었는데, 축구실력도 발전해서 학교대표선수, 소년체전 주전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2개 종목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태권도보다는 축구 단체시합을 선택하여 태권도 선발대회에서 탈락하고 축구대표 선발했으나 두 종목 전부 탈락하게 되었다.

참 희한한 경험은 보통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보면 공부와는 담 쌓는 게 보통

이나 운동선수 생활 중에 학교 시험은 보게 되는데, 나는 책 보고 공부하는 걸 핑계쳐 버리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책을 봤지만 공부했던 것이 시험을 볼 때 참말로 뚜렷하게 공부한 것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서, '어라!! 어찌 공부한 내용인데 신기하게 똑같이 문제로 나오네?' 하며 신기해 했었다.

이렇듯 학교생활 때에 운동하면서도 성적은 좋고 우수상도 자주 받아서 선생님들이 귀여워 해줬던 것이다.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의 운동부 학생들과 달리 아이들과 패싸움을 하는 데 까지도 않았고, 설령 아이들이 나를 패싸움에 끌고 가더라도 나는 싸움에 관심이 없어서 싸움이 그냥 흐지부지 끝난 적도 많았다. 밴텀급 챔피언이라는 레데르가 있는데가 몸도 커서 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나에게 대들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태권도를 배울 때에 가르침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도를 배우는 것은 남을 해지거나 무술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요, 자신을 방어하고 마음을 수련해서 약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란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가슴깊이 새겼던 기억이 있다. 할머니께서 절에 다니시면서 열신히 도를 닦았다고 하는데 내게도 그런 피가 흐르는지 마음수양과 도를 닦는다는 것에 괜히 마음이 끌렸던 모양이다.

멘토가 필요했던 고교시절

중학교(문태중)에 들어가서는 육상선수로 뛰었고, 고등학교(영흥고) 때는 초등학교 시절 자란 몸에서 조금밖에 안 자랐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보통 학생처럼 대입을 준비하였다. 고3때 달

인선생님은 교대를 가라고 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것보다 연연이 되는 게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연극영화과를 가겠다고 하니 선생님은 공주교대에 지원서를 내게 했고, 1차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교대를 진학하지 않으려고는 내놓고사를 보러가지고 고의적으로 떨어졌다. 당시 우리집은 부모님이나 형과 누나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누군가가 멘토 역할을 해줬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198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목포의 해인 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에 취직하였는데 서무과에 근무하시는 친구 아버지께서 마침 필경실에 자리가 났다며 이로서 근무하면서 공부해서 대학에 가라고 배려해 주신 것이었다. 한 일 년쯤 다니자 직장생활이 뭔가 갑갑하게 느껴졌다. 필경실은 학교 시험문제지라 듣거나 그런 것을 복사 또는 제작하는 곳이라 학생을 비롯한 외부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나보다 겨우 적으면 한두 살, 기껏해야 네댓 살 차이나는 여학생들 천지인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나로서는 매우 힘들었다. 사무실에서 저 멀리 떨어진 교직원 화장실에 가려해도 여학생들이 “찌질이(별명) 간다”고 반쪽짜리는 눈으로 쳐다보면 괜히 부끄러워졌고, 그러한 내 행동에 갑갑함을 느꼈던 것이다.

어느 날 청밖을 몰고러미 내다보다가 불현듯 한 인간의 생로병사가 눈앞에 쭉 펼쳐지며 인생의 무상함이 물밀 듯이 물러들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

어 죽는 것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다. '인생이란 별 게 있는가. 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라는 허무감에 불현듯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후 자살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 맴돌았다. 자살을 실행에 옮기려고 목포의 대반동 바닷가로 나갔다. 막상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니 부모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내가 죽으면 부모님은 무척 슬퍼하시겠지. 그분들을 슬픔에 빠지게 해서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자 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다. 그후 몸은 자꾸 수척해졌다.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대 신체검사를 받을 때 폐결핵 2기라며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대순진리회에 입도하다

서무과에 근무할 때 나이 높으신 교직원 분들이 매일 필경실 부탁업무로 찾아와서는 새내기 20세 청년에게 존댓말로 부탁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대학원학 재수공부도 안 하고 해서 퇴직하고 미용사 자격증 따서 재취업할 생각으로 1년 8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고 미용학원 다니면서 4개월째 배우던 중 서울 큰 형 집에 놀러오라는 전갈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떤 생각이 꽃히면 고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서울 잡살기 위해 정읍에 내려가서 만나보니 거기서는 여동생 선생의 선법(仙法)을 배우와야 한다고 하면서 서점에 가면 책이 있는데 인연이 닿는 사람이나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책을 사서 보니 호흡수련법이었다. 호흡을 통해서 신신이

에서 박한경이라는 분이 만든 종교이다. 대순진리회에 들어가니 나를 '일꾼'이라고 불렀고, 심어 명과 함께 그곳에서 합숙하며 생활하였다. 대순진리회는 일꾼들에게 식사나 용돈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거지의 도(道)라고 해서 포덕(佛德) 즉 전도를 할 때 드는 비용, 차비나 밥 등을 포덕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어서 가져왔고, 그것으로 수제비도 끓여 먹고 라면도 먹으면서 생활했다. 나는 심약(心弱)한 성격에 자존심도 강하고 해서 처음에는 도저히 그런 일을 못했는데, 몇 개월 지나자 그러한 일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포덕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전경(대순진리회 경전)에 나와 있는 중산 선생의 말씀을 자세히 풀이를 해주며 정읍에 김효진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진짜 도를 닦을 수 있다고 하였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전경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진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있는 내 취향에는 이것이 맞지 않아 '대순진리회에서 도 닦아 봐야 별로 배울 것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대순진리회를 나와버렸다. 그곳에 입도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다시 고향인 목포로 내려온 후 김효진 선생이 가르치는 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읍에 내려가서 만나보니 거기서는 여동생 선생의 선법(仙法)을 배우와야 한다고 하면서 서점에 가면 책이 있는데 인연이 닿는 사람이나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책을 사서 보니 호흡수련법이었다. 호흡을 통해서 신신이

한편 남달리와 아셀을 포함한 단지파는 고센 땅의 북부 이집트 타니스(Tanis) 즉 소안(Zoan)을 성읍으로 삼고 지중해 연안국과 교역을 하며 번성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생활 400년 가운데 200년이 경과할 즈음에 희소스(Hyksos)의 다섯 왕(세시:Sheshi, 야쿠브헤르:Yakubher, 키안:Khyan, 아페피 1세:Apepi I, 아페피 2세:Apepi II)이 약 100년(BC 1674~1575) 동안 애굽을 통치하였는데, 곧 이집트 15왕조, 16왕조이다. 희소스 왕조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밀접한 관계를 다음호에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박태선 기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효진 선생을 만나면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호남고'라는 신발 만드는 회사였다. 완성된 신발을 포장하는 포장반에서 일을 하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었는데 내가 퇴사한 지 3일만에 그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일이었다.

승리제단에 들어가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길을 가다가 고재홍 승사님과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고 그날(토요일 밤) 열차로 역곡에 올라와서 목욕탕에서 몸을 쉰 후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